

## 2019 고난주간

### '나'에서 '우리'로 확장될 때, 진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

#### 1. 단계

[에베소서 4:13-14]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4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12-14]

12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젓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 젓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단계가 있음을 말한다. 어린아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신앙의 단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앙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이 모두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가 왜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 2. 성장과 성숙

성경은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분명히 한다. 성장과 함께 필요한 것이 성장을 담을 수 있는 성숙이다. 성장은 외적인 영역을 말한다면, 성숙은 내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성장은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숙이 성장을 담을 수 있는 더 높고 넓은 차원이다. 영적원리도 이와 같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이 (사도행전 9:17, 13:9, 13:52)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외적인 충만 (일시적 충만 '플레스')** : '은사'와 같이 보여지는 영역이다. 기계와 같다. 기계는 있으면 편하다. 도움이 된다 (자동차, 통신기기 등). 그러나 없어도 살 수 있다.

\* **내적인 충만 (지속적 충만 '플레르')**

: 나무와 같다. 생명력이 우선이 된다.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생명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보여지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함께 있어야 한다. 외적인 능력은 성장으로 가능하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외적인 능력은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그런데 이 때 내면의 성숙함이 동반하여 사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성숙이 없는 성장이 가장 위험하다. 성숙이 없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성장으로 인한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 3.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 2: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도 성장하셨다.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그런데 성숙함과 함께 하셨다. 그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거한다. 예수님의 성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두가 인정하는 성장이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컸네' 라는 말을 쓴다. 어른들이 사용하는 이 말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됨됨이'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 잘 받았네, 부모님이 누구신가?'라는 말이다.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과 함께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이다. 나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묶여진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며, 사랑의 본질이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을 말한다.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늘의 능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이 확장이 보여지는 성장에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4. 예수님의 고난과 확장, 그리고 능력

예수님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안에 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겠는가? 그들이 기도하면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났겠는가? 그 답은 예수님의 고난안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이에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목적과 결과가 명확히 소개된다.

[이사야 53:4-6]

4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무엇인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라는 단어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조금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부 '우리'를 위해서이다.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성숙'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찢리셨다. 상처를 받으셨다. 징계를 받으셨다. 매를 맞으셨다.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 '우리의 평화', '우리병의 치유',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당하신 것이다. 이 고난이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나'에 있다. 내가 상처 받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무시 당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 왜 나만? 이라는 마지막 질문이 내면안에 있다. 그런데 이 때 믿음의 눈을 떠서 고난 뒤에 있는 하늘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 오늘 이와같은 질문이 있는가? 이웃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내면안에 어려움이 있는가? 바로 이 순간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넘어 '이웃'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 과정이 이사야 53장의 '고난'이다.

## 5. 나를 넘어 우리로

이제 성장에서 성숙으로 가야 한다. 더 큰 그릇, 넓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응축한 마음, 인색한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내 이웃의 연약함을 품고, 섬기고, 보듬을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내 마음이 힘든 이유는 분명하다. 이웃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내가 성숙함이 없기 때문이다. 둘 중에 한 명이 성숙하다면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 그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난다. 이제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라. 왜 그 분의 고난안에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 삶을 따라가야 한다.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자. 하늘문이 그에 비례하여 열린다. 제자들에게 열린 하늘문은 열방이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제자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 모두가 이사야 53장의 고난이었다. 그런데 그 고난안에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

고난주간, 고난안에 있는 비밀을 보자. 내가 죽는 것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하늘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짐을 믿음으로 취하자.